



일본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중로구 율곡로 64 Tel 02. 765. 3011~3

09-10

2017 | Vol. 548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10月のある素敵な日に) Photo : Lee JIHYUN

일한 정상회담

9월 7일 오전 9시 35분(현지 시간)부터 약 50분간,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총리대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일한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일본 측 배석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대신,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郎) 관방부장관, 하세가와 에이이치(長谷川榮一) 총리 보좌관, 아치 쇼타로(谷内正太郎) 국가안보국장 외, 한국 측 배석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외).

첫머리에 아베 총리는, 7월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수 있어 기쁘며, 지난달(8월)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세 차례의 전화회담을 가졌고, 4일에도 북한의 핵 실험과 관련해 전화회담을 갖는 등, 정상 간에 당면한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잇단 도발 행위는 유례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으로, 지금까지 일한 및 일한미가 보조를 맞추어 긴밀히 공조해 왔는데, 계속 협력을 강화했으면 하며, 또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추진해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일한 관계를 구축해 가자고 말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해, 이번 핵 실험 이후 국제 사회 전체의 대북 압박 강화 흐름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일한 및 일한미는 이러한 기운을 최대한 활용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압박을 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일한미의 안보·방위 협력이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어려운 정세에 대한 아베 총리의 견해에 동의하고, 강력한 안보리 결의 추진을 포함해, 지금은 최대한 압박을 가할 때라는 의견에도 동의하며, 한국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한국 국민의 불안감도 높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지금은 압박 강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더 강력한 안보리 결의의 채택을 추진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협력 요청을 포함해 일한·일한미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일한 관계에 대해, 아베 총리는 '징용공'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어려운 문제를 적절히 관리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베 총리는, 일한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은 지역 및 세계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며, 정치·안보와 경제는 물론, 청소년 교류 및 관광 협력 등의 인적 교류를 강화해, 상호 국민 감정의 개선으로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 정상은 정상 간에서 솔직한 의견 교환을 계속해 가기로 했다.

일한 외교장관회담

9월 7일 오전 8시경(현지 시간)부터 약 50분간,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 중인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대신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일한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양 장관은 북한을 둘러싼 정세에 대해, 지금은 최대한 압박을 가해야 할 때라는 인식에 일치하고, 더욱 강력한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일한 및 일한미가 계속 긴밀히 공조해 가기로 했다.

또 고노 장관이, 일한 간에는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적절히 관리해 가고 싶다고 말했으며, 양 장관은 일한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 가기로 했다.

고치현과 전라남도 자매교류협정 체결 1주년

니요도 강

고치현

고치현(高知県)은 도쿄에서 남서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시코쿠(四国)섬에 위치하며, 인구는 약 73만 명이다. 남쪽은 태평양과 면해 있고 시코쿠섬의 남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에서 직항편이 취항하고 있는 일본 내 각 도시에서 고치까지는, 가가와(香川) 다카마쓰역(高松駅)에서 약 2시간, 도쿄(東京) 하네다공항(羽田空港)에서 약 1시간 20분,

오사카(大阪) 이타미공항(伊丹空港)에서 약 45분, 후쿠오카(福岡)공항에서 약 1시간이 걸린다.

지난해 한국의 전라남도와 자매교류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에 따라 임업, 관광, 아동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고치현이 자랑하는 ‘세 가지 일본 NO.1’

~음식, 자연, 축제~

고치현에는 ‘세 가지 일본 NO.1’이 있다. 첫 번째는 음식이다. 고치현은 온난한 기후와 풍요로운 자연 덕분에 산해 진미가 넘쳐 난다. 일본 국내의 유명 여행 잡지 설문조사에서 ‘그 지역 고유의 맛있는 음식이 많았다’라는 항목에서 당당히 1위에 오르기도 했다(과거 8년간 1위만 6회). 고치의 대표 식재료인 신선한 가다랑어를 쪄서 구워 만든 가다랑어 다타키(カツオタタキ)는 가다랑어에 대해 흔히 꿔고 있는 고치만의 음식이다. 또 고치현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과도 술잔을 주고 받으면 금세 가족과 같이 친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시만토 강



고치현 최남단의 명소인 아시즈리 곳

두 번째는 맑은 물이다. 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이 발표한 하천 수질 순위에서 고치현 중부에 위치한 니요도 강(仁淀川)은 '기적의 니요도 블루(仁淀ブルー)'라 불리며, 그 수질이 4년 연속으로 일본 최고를 기록했다. 또한 고치현 서부에 위치한 시만토 강(四万十川)은 '일본의 마지막 청류'로 불리는데 '일본 3대 청류'의 하나다. 이 청류를 바라보며 즐기는 사이클링, 청류에서 식사를 즐기는 야카타부네(屋形船, 지붕이 있는 놀잇배) 체험, 카누 등의 활동은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치현이 일본에서 제일 인기 있는 요사

코이 마쓰리(よさこい祭り)의 발상지라는 점이다. 일본 전국의 200곳 이상, 해외에서도 21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요사코이 춤을 추고 있다. 8월에는 요사코이의 성지인 고치로,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요사코이 팬들이 모여들어, 고치의 거리를 요사코이 일색으로 물들이며 뜨거운 고치의 여름을 만끽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요사코이'를 전세계인에게 소개하고 국제교류를 촉진하며, 요사코이의 즐거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해외의 요사코이 팀 대표를 '요사코이 앰버서더'로서 고치현이 공식 인증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국의 부산 팀도 앰버서더로 인정받았다.



가다랑어 다타키



히로메 시장



윤학자 여사 기념비



윤학자 여사



요사코이 마쓰리

만화 왕국, 도사(土佐)

천혜의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풍부하고 변화무쌍한 풍토와 이를 바탕으로 길러진 느그럽지만 심지가 곧은 현민성(県民性)은 많은 만화가를 배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고치현에서는 만화를 귀중한 문화 자원으로 인식하며, '만화 왕국 도사(고치현의 옛 이름)'로서 만화 문화를 일본 전역 및 해외에 널리 알려 왔다.

고치현에는 만화로 꾸며진 길, 박물관, 기념비 등과 같이 만화와 관련된 장소가 많으며, '전국 고교 만화 선수권 대회(만화 고시엔)', '전국 만화가 대회' 등 1년 내내 특별한 이벤트와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다.

2014년부터 전라남도 고교생들도 만화 고시엔에 참가하고 있다. 2017년에는 해외팀으로서는 처음으로 우승하여, 만화 고시엔 본선에 진출한 33개교 중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작년부터는 한국 전체로 확대해 참가 학교를 모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젊은 세대의 교류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치현과 전라남도의 교류

~윤학자(尹鶴子) 여사의 인류애~

1997년 윤학자 여사의 기념비 건립을 계기로 고치현과 전라남도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그 후 2016년 10월에는 자매 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두 지역 교류의 초석이 된 윤학자 여사는 전라남도 목포시의 고아원 '목포 공생원'에서 3천 명이 넘는 고아를 키워내며 '목포의 어머니'로 사랑 받았고, 대한민국 문화훈장 국

민장을 수상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당시, 극적도 빈부도 묻지 않고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로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윤학자 여사는, 그는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위대한 인물이다.

전라남도와의 미래

올해는 윤학자 여사 기념비가 건립된 지 20년이 되는 해다. 10월 31일은 전라남도와의 자매교류협정 체결 1주년을 맞아, 고치현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목포 공생원 원아들의 고치현 방문 및 고치현 아동들과의 교류 등을 예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9월 24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축제한마당'에 고치현과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부스를 설치해, 상호 지역 홍보 및 요사코이 엠버서더로 임명된 부산 요사코이팀의 공연 등을 예정하고 있다. 또 10월 26일부터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개최되는 '국제농업박람회'에는 고치현 부스를 설치하여, 농업 분야뿐 아니라 고치현 관광과 니혼슈(일본 술) 시음 등 다양한 분야의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류애에 기반해 교류를 이어 온 고치현과 전라남도, 두 지역을 넘어 일본과 한국의 우호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고치현은 두 지역의 교류를 더욱 촉진해 가고자 한다.

[문의처] 고치현 문화생활 스포츠부 국제교류과

TEL : +81-88-823-9605 FAX : +81-88-823-9296

Email: 141901@ken.pref.kochi.lg.jp

고치현 홈페이지 www.pref.kochi.lg.jp/korean/

고치현 관광정보 <http://www.attaka.or.jp/>

<http://www.visitkochijapan.com/>

(집필: 고치현, 협력: CLAIR, Seoul)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Seoul

한국과 일본 양국 간 최대 규모의 문화교류 축제인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Seoul'이 9월 24일(일) 서울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된다.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하는 '한일우정의 해 2005'의 주요 사업으로 시작된 '한일축제한마당'은 양국 최대 규모의 풀 뿌리 문화교류 행사로 성장해 왔으며, 13회째를 맞이하는 올해는 '함께 나아가자 한마음으로'를 테마로 다양한 무대공연과 부스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와 '도쿄 2020 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한일 양국의 올림픽에 대한 응원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 의미를 더한다. 공식행사의 오프닝 공연으로 일본문리대학 치어리딩부 'BRAVES'와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와 함께 하는 한일올림픽 응원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또 축하공연으로 '돗토리 히가시 고등학교' 서예 퍼포먼스 및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과 '서울일본인학교'의 한일합동공연에서는 'together'를 부르며 공식행사를 마치게 된다.

한일광장의 '페스티벌 월'에서는 방문객들로부터 한일축제한마당은 물론 올림픽과 문화교류 등에 대한 다양한 응원 메시지를 받아 이를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하는 등 '함께 나아가자 한마음으로'라는 테마에 걸맞은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된다. 또 양국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무대 공연과 부스가 준비된 이번 행사는 진정한 축제의 매력은 물론 재미와 즐거움까지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축제의 프로그램은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행사내용은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Seoul' 공식홈페이지(www.omats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시/장소 9월 24일(일) 10:00~19:30 / 코엑스 전시관 D홀(3F)
테마 함께 나아가자 한마음으로 / 共に歩もう 心ひとつに
슬로건 즐거운 축제, 즐거운 만남, 즐기는 우리
주최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Seoul 실행위원회
주관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Seoul 운영위원회
사무국 (사)한일문화·산업교류협회

후원 (한국측)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서울특별시, KBS,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일문화교류회의
(일본측)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관광청, 일본정부관광국(JNTO), 일본국제교류기금, 일한문화교류기금, 서울재팬클럽(SJC), 일본자치체국제제화협회(CLAIR)
문의 한국측운영사무국(셋강나루) 02-702-7775

무대 프로그램 안내 - 공연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Seoul’은 KBS 아나운서와 함께 장혜령 씨, 아사다 에미 씨, 오카와 노부코 씨가 무대 진행을 맡는다.

1부 : 공식행사

공식행사의 오프닝 공연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와 ‘도쿄 2020 올림픽 · 패럴림픽 경기대회’ 개최를 앞두고 한일 양국의 올림픽 응원 퍼포먼스가 개최된다. 일본 오이타현 일본문리대학 치어리딩부 ‘BRAVES’가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가 함께 한일 양국의 올림픽 응원 퍼포먼스를 펼친다.

축하공연으로 ‘돗토리 히가시 고등학교’ 서예 퍼포먼스로 한일 양국의 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응원 메시지를 선보이며,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과 ‘서울일본인학교’의 합동공연에서는 이번 테마에 걸맞게 ‘together’를 부르며 공식행사를 마치게 된다.



2부 : 즐거운 축제

2부에서는 ‘즐거운 축제’를 테마로 한 특별공연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의 7개 출연단체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특별공연1은 〈한일합동공연〉으로 ‘한일소년소녀합창단’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감동의 무대를 만들어 낸다. 이어서 일본 전통무용 팀 ‘미오노야’와 한국의 타악 퍼포먼스 그룹 ‘청명’의 강렬하면서 신명 나는 무대가 펼쳐진다. 또 사쿠하치와 피아노, 퍼커션으로 구성된 ‘아지글(AJIGUL feat. Tatsuya Nakamaru)’과 퓨전 국악그룹 ‘비단’의 무대가 이어지고, 일본의 요사코이 팀 ‘약동’과 고치현 요사코이 엠버서더로 임명된 부산 요사코이팀인 ‘부산기병대’가 양국의 우정을 다짐하는 뜻 깊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일본 전통 북과 서양 드럼을 조합한 ‘가류’의 공연으로 2부 공연이 구성된다.

3부 : 즐거운 만남

3부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관객과 하나되는 무대가 펼쳐진다. 채향순 중앙무용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미치노쿠 센다이OR☆히메타이’ 공연, ‘익스프레션 크루’ 댄싱 팀의 화려한 군무, 일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색소폰 연주자 ‘유코미리’의 무대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일 코스프레’ 공연이 마지막을 장식한다.

4부 : 즐기는 우리

4부 무대에서는 이번 축제의 두 번째 특별공연인 ‘스페셜 콘서트’와 ‘피날레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스페셜 콘서트’로 한국의 여성 걸그룹 ‘TAHITI’의 K-POP 무대를 시작으로, 일본은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팬을 보유한 ‘kradness’의 J-POP 무대가 진행된다.

한국의 ‘청사초롱’과 일본의 ‘초칭’이 등장하며 시작될 ‘피날레



공연’에서는 ‘요사코이 아리랑’ ‘약동+부산기병대’, ‘BRAVES’, ‘채향순 중앙무용단’ 공연이 이어진다.

특히 ‘김덕수 사물놀이 한울림 예술단’의 신명 나는 공연은 행사장을 흥분으로 가득 채우며, 한국과 일본 출연단체 및 관객, 자원봉사자, 관계자가 하나 되는 감동의 순간을 만들 것이다.

체험 프로그램 - 부스행사 및 이벤트

올해 한일축제한마당은 〈체험 · 이벤트 부스〉〈푸드 부스〉뿐만 아니라, 〈지자체 부스〉〈기업 부스〉등 약 54개의 부스를 적극 유치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지자체 부스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자매도시인 전라남도도와 고치현, 돗토리현과 강원도가 함께 부스를 설치하여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Seoul’ 사전행사

9월 24일 코엑스 D홀에서 개최되는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Seoul’에 앞서, 한국과 일본 아티스트의 전통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사전행사가 9월 23일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개최된다. 관람 무료.

일시: 9월 23일(토) 18:00~19:30

장소: 금호아트홀 연세

주최: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Seoul 운영위원회, 서대문구

문의: 서대문구 지역활성화과 02-330-8108

Cool Japan!

일본 지방의 매력과 지역 활성화를 찾아서



일본 외무성의 청소년교류사업 'JENESYS2017'의 일환으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선발한 한국의 대학생 36명(인솔자 2명, 학생 34명)과 고등학생 70명(인솔자 4명, 학생 66명)이 9박 10일 일정(대학생 : 2017년 7월 19일(수)부터 7월 28일(금)까지, 고등학생 : 2017년 7월 25일(화)~8월 3일(목)까지)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일행은 '일본 지방의 매력과 지역 활성화를 찾아서'라는 테마 아래 대학생단은 나가사키현(長崎県)의 미나미시마바라시(南島原市), 운젠시(雲仙市), 나가사키시(長崎市), 사세보시(佐世保市)와 도쿄를, 고등학생단은 구마모토현(熊本県)의 아마쿠사시(天草市), 나가사키현의 나가사키시, 사가현(佐賀県)의 아리타정(有田町), 도쿄 등 여러 도시를 방문해 'Cool Japan'으로 표현되는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하고 돌아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일본의 일반 가정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홈스테이, 학교 방문, 기업 방문,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체험 활동(레이호쿠(蓑北) 진주 캐기, 미카와치(三川内) 도자기 생산지역 시찰), 유카타(浴衣) 입기와 다도(茶道) 체험 등의 일본 전통문화 체험이 마련되었다. 특히 고등학생단의 경우, 구마모토현 지진 재해지의 부흥 상황을 시찰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귀국한 후, SNS 등을 통해 일본의 매력을 한국에서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Cool Japan 리포터들의 생생한 일본 방문 포스팅은 아래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Cool Japan리포터 네이버 공식 카페
(일본의 매력을 발견하는 Cool Japan 리포터,
<http://cafe.naver.com/youthexchangejpr>)

대학생단 소감문 한여름 밤의 꿈

송민재 | 대학생단 학생대표 / 성균관대학교 행정학 · 국제통상학 4학년

2017년 7월 19일, 인천 국제공항의 하늘 속에 나를 맡긴다. 4년 만에 방문하는 도쿄는, 마치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가족을 반겨주듯 따스하고 반가운 미소를 지어준다. 방에 들어와 '도쿄'라는 한 폭의 도화지를 펼친다. 326년 전통의 맛이 녹아든 두부, 광활한 푸른 하늘 속 질서정연한 도쿄 시내를 녹여낸 스카이트리, '아사쿠사'라는 팔레트 속에서 화사한 벚꽃 색채를 몽환적으로 풀어낸 유카타, 그리고 간다외대 학생들의 정겨움과 살가움 등이 제법 그럴듯한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독특한 한 폭의 그림으로 완성된다.

2017년 7월 22일, 새로이 '나가사키'라는 한 폭의 도화지를 펼친다. 해바라기 마을의 평화로움, 홈스테이 가정의 친절함, 구치노쓰항 마을축제의 즐거움, 불꽃놀이의 화려함으로 도화지의 밑바탕을 꾸민다. 이어서 '운젠 지역'에서 즐기는 온천의 안락함, 나가사키 평화공원의 슬픔과 엄숙함을 정성스레 덧칠한다. 이번 역시 정갈하면서도 소담한, 고유의 매력을 품은 한 폭의 그림이 마무리된다.

2017년 7월 28일, 완성된 두 폭의 도화지를 가슴에 품고, 후쿠오카 국제공항의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민간 대학생 외교관으로서 문화교류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던 일정이 그렇게 마무리에 접어든다. 설렘



아사쿠사 유카타(필자 뒷줄 오른쪽에서 4번째)



공항 단체사진

한 조각, 즐거움 한 조각, 그리고 아쉬움과 담담함 한 조각. 일본의 살아있는 숨결을 오롯이 입어보고, 맛보고, 품어봤던 9박 10일간의 한여름 밤의 꿈. ‘일본을 안 가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 본 사람은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절로 공감되던, 마치 꿈만 같았던 몽환적인 여정이었다. ‘JENESYS2017’ 청소년교류사업 덕분에 항공·숙소·식사 등을 지원받으며 오감으로 체험했던 문화 탐방은,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매우 값진 기회였다. 또한, 이번 경험이나의 인생에 값진 자양분이 되어줄 뿐 아니라, JENESYS 프로그램과 외무성,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일한문화교류기금 측에서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인재가 되어, 훗날 보답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1단 학생 34명의 대표로 활동하며 즐거웠지만 때로는 어깨가 무거웠던 역할 수행은, 일반 단원으로 활동했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더욱 큰 보람과 성취감을 남겨주었다. 일본 외무성과 일한문화교류기금 등의 주요 인사들 앞에서 이루어진 학생 대표 연설에서는, 한국에서 온 젊은 청년들에게 양국관계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게 할지에 대한, 짧지만

굵직한 고민을 담아 발표했는데, 결과적으로 목표했던 메시지가 잘 전달된 것 같아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2017년 8월 12일, 새로운 도화지를 펼쳐 든다. 그간 일본에서 보고, 듣고, 느꼈던 수많은 경험뿐 아니라, 그보다 더욱 값진 존재인 단원들의 얼굴을 만년필로 그려낸다. 어쩌면 추억만큼이나 귀중한 ‘사람’을 얻었다는 것 또한 이번 일정에서 너무도 감사한 일이다. 일본방문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열정 가득한 이들과 함께, 성과보고회에서의 사진과 영상만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마음 속 깊이 담아간다.

사람의 삶에 있어 10일은 그저 찰나에 불과한 짧은 기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일본 방문 기간 동안의 너무도 특별했던 꿈같은 10일은, 앞으로 우리들의 생애에 큰 획을 그을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간 일본에서 동고동락했던 1단 소속 이지형 교수님, 박민아 교사님, 시미즈 씨, 통역사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단원들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다시금 전하고 싶다.



간다외국어대학교 캠퍼스 내 한국관에서 일본학생들과 교류(필자 왼쪽에서 3번째)



홈스테이 사진(필자 뒷줄 왼쪽에서 첫번째)

고등학생단 소감문

내 오랜 친구 휠체어와 함께한 일본 방문 프로그램

김지우 | 계성고등학교 1학년

여행. 그것만큼 마음을 들뜨게, 설레게 하는 단어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행’하면 가장 먼저 걱정이 앞선다. 교통수단은 어떡하지? 비행기를 탈 때는? 못 가는 곳이 많지는 않을까? 너무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는 것은 아니냐고? 아니, 저 걱정들은 모두, 내 오랜 친구, ‘휠체어’ 때문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휠체어를 타고 자랐다. 당연하게도, 나의 여행에는 언제나 부모님이 함께였다. 그런 이유로, 나에게 이번 ‘JENESYS 2017’ 참가는 큰 벽과도 같았다. 일본어 스피치 대회에서 수상한 후, 나에게 찾아온 것은 수상의 기쁨보다 걱정이었다. ‘나 혼자서 열흘의 일본 방문 프로그램 참가가 가능할까?’하는 생각인 것이다.

그런 걱정은, 본 프로그램의 현지 실시 단체인 일한문화교류기금에서 보내온 계획표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측에서 작성한 각각의 일정에 따라 내 휠체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는 메일을 받은 후 사라졌다. 철저한 준비와 나에 대한 배려가 믿음을 준 것이다.

공항, 걱정으로 쉬이 나를 보내지 못 하시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나는 홀로, 아니 내 휠체어와 함께 ‘JENES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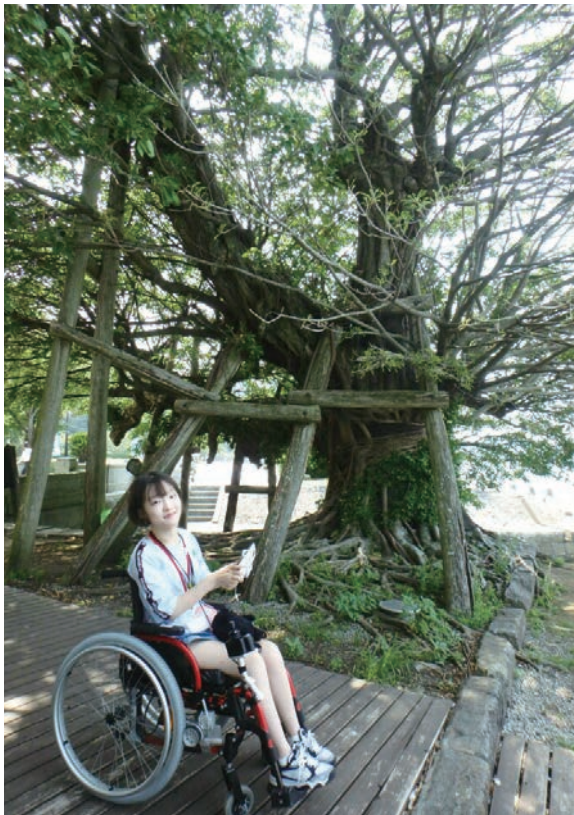


유카타(필자 제외 앞)



구마모토현의 유루카라 ‘구마몬’ 과 함께

2017’ 길에 올랐다. 여행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은, 나를 한 걸음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 주었다. 지진 피해와 예방 방법을 알기 위해 지어진 도쿄 소나 에리어에서, 당연히 휠체어로는 체험이 불가하다고 생각한 나는 일행의 뒤로 빠져있었는데, 휠체어도 문제 없다고 하시던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문득 한국에서의 내 모습을 떠올렸다. 어릴 때, 소방서에서 받았던 안전대피 훈련 때에도, 유모차는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에 어린 나 혼자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부러워하며 흘쩍이던 기억. ‘많은 것이 아직도 달라져야겠구나, 그리고 그걸 바꾸는 것에 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홈스테이에서도, 할머니께서는 나를 위해 침대도, 목욕에 불편하지 않으라고 의자와 손잡이도 준비해 주셨다. 집 안에는 많은 손잡이가 벽에 달려 있었다. 나에게 할머니는, 본인도 다리가 불편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모두 나를 위해 할아버지와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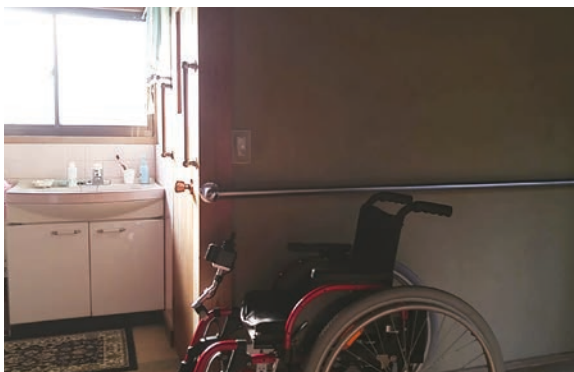
미나미시마바라시 인근 바닷가에서

머니께서 손수 벽에 달아주신 것이었다. 산 위에 있던 나가사키의 명소 글로버엔 또한, 곳곳에 있는 슬로프와 에스컬레이터로 어렵지 않게 돌아볼 수 있었다. 10일간의 코스들 중, 내가 단원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코스는 단 1개였다. 그 외에도, 나를 위해 3단에 함께하셨던 투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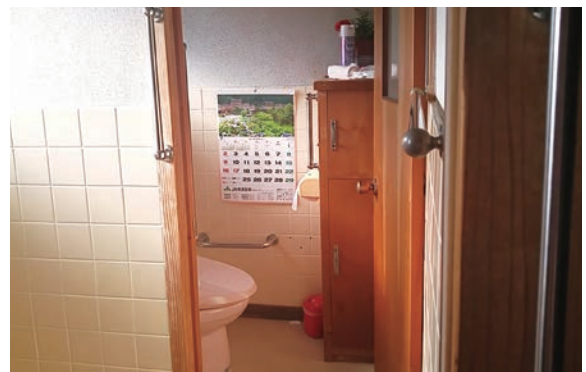
스, 유카 씨 또한 최선을 다해 내 생활을 도와주셨다. 유카 씨를 제외하고도, 나와 언제나 함께 힘든 길을 가 주셨던 일한문화교류기금의 시미즈 씨, 다지마 씨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일본의 여름, 그 화사하고 찬란한 시간의 한복판에서, 나는 중요한 것을 여러 가지 얻을 수 있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장애를 느끼지 못 할 때라는 말이 생각 났다. 이번 일본방문프로그램에서, 나는 내 장애를 인식하지 못 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단원들과 함께 하며 보냈다. 일본을 좀 더 알고,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너무 소중한 인연들을 얻었으며,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얻었다. 아직도 눈을 감으면 그 장소로 돌아간 것만 같다. 너무나 소중한 그 때의 사람들, 공간들이 계속 꿈에 나오곤 한다. 아마 이 감정은 꽤나 오랫동안 내 가슴 속에 머무를 것 같다.

내 꿈은 대한민국, 아니 이 세상의 장애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다. 화 낼 수 없다면 대신 화내주고, 울어주는 사람 말이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잇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임을 일깨워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 나는 휠체어로 다니는 여행 비디오클립을 찍어 유튜브에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마침 'JENESYS 2017'에 참가하게 되어 더욱 풍성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정말로 큰 행운이라는 생각을 한다. 앞으로 이 계기가 밑바탕이 되어,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한다. 나에게 찾아온 뜻밖의 행운, 'JENESYS 2017'에 감사한다.



홈스테이 가정에서 준비해준 손잡이





‘일본문화원 리포터’ 3기, 활동 시작!

‘일본문화원 리포터’는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주최, 후원하는 행사와 다양한 일본문화를 취재하여 SNS를 통해 소개하는 자원봉사자다.

일한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2015년에 처음 모집한 일본문화원 리포터는 대학생 및 현직 신문기자, 파워 블로거 등으로 구성되었고, SNS와 본지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올해도 지난 6월, ‘일본문화원 리포터(3기)’를 모집하여 대학생 및 일반인으로 이루어진 총 14명을 최종 선발했다. 지난 8월 4일(금),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발대식이 열려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내년 2월까지 약 7개월 간 매력적인 일본문화와 일본관련정보를 취재하여 SNS를 통해 소개하게 된다.

일본문화원 리포터의 글은 앞으로 일본문화원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bunkain>)에 연재될 예정으로 일본여행에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나 추천 여행지, 재미있는 일본문화를 소개한 글 등을 비롯해 다양한 내용을 담게 된다.

특히, 이들은 오는 9월 23일(토)~24일(일) 도쿄 히비야 공원(日比谷公園)에서 개최될 ‘한일축제한마당 2017 in Tokyo’의 부스 운영 및 현지 취재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데, 일본문화원 리포터로서 직접 참여한 한일축제한마당의 관련 소식과 체험담을 소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일본문화원 리포터의 활약을 일본문화원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이돌인 AKB48에서 엔카 가수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최로 열린 '제15회 일본가요대회' 본선이 지난 7월 29일 많은 참가자와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이 행사의 축하 공연 아티스트로서 멋진 무대를 선보인 이와사 미사키(岩佐美咲) 씨와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한국에 대한 인상은 어떤지.

AKB48로 활동하면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고, 이후 개인적인 여행으로도 왔습니다. 먹거리나 쇼핑 등을 즐기러 올빼미 여행으로 자주 찾는, 너무 좋아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공연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한국에는 1년에 두세 번 정도 방문하고 있는데, 올 가을쯤 다시 찾을 생각입니다.

2012년부터 본격적인 엔카 가수로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는데, 엔카 가수로 데뷔하게 된 계기는.

AKB48에 소속해 있을 당시, 그룹 내에서 '가라오케 대회'라는 이벤트가 개최되어, 엔카를 불렀는데 우승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AKB48 프로듀서인 아키토모 야스시(秋元康)선생님께서 엔카에 도전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신 것이 계기가 되어, 엔카 가수가

韓国に対する印象は.

AKB48としての活動で訪韓したことがあり、その後は個人的な旅行でも訪問しました。食べ物やショッピングなどを楽しむため、弾丸旅行でよく訪れる大好きな国ですので、この度はこのように公演ができて本当に嬉しいです。韓国には1年に2, 3回ほど訪問しますので、今年の秋頃にまた訪ねようと思っています。

2012年から本格派演歌歌手として活動の場を広げていますが, 演歌歌手としてデビューするようになったきっかけは.

AKB48に所属していた当時, グループ内で「カラオケ大会」というイベントが開催されて演歌を歌い, 優勝しました. その様子を見たAKB48のプロデューサーである秋元康先生に演歌に挑戦してみたらどうか」と言ってもらったのがきっかけで演歌

되었습니다. 그때 가라오케 대회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겠죠.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주최하는 '가라오케 대회'에 초대가수로 오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공연은 어떠셨나요. 이번에 부른 노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이 있다면.

한국에서 솔로로 노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제 이름을 쓴 보드를 들고 있거나, 펜라이트로 이름을 불러주는 팬들이 있어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기뻛고, 공연 분위기도 따뜻해서 매우 즐거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곡은 역시 첫 번째로 부른 저의 솔로 데뷔곡 '무인역'입니다. 지금까지 수백 번도 더 부른 노래로 '이 곡과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노래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엔카'란 다소 다가가기 어려운 장르인데, AKB48의 히트곡을 엔카 버전으로 부르는 등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엔카를 대하는 이와사 미



歌手になりました。その時、カラオケ大会に参加していながら、本日この場にはいなかったでしょうね。在韓日本大使館公報文化院が主催する「カラオケ大会」にアーティストとして招待され、感無量です。

本日の公演はいかがでしたか。本日歌った曲の中で最も思い出のある曲があれば。

韓国でソロで歌うのは今回が初めてでしたが、私の名前を書いたボードを持ち、ペンライトで名前を呼んでくれたファンがいて、とてもびっぴりました。こうして私のことを知って応援してくださる方々がいるという事実が嬉しかったですし、会場も温かい雰囲気で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最も記憶に残っている曲は、やはり一曲目で歌った私のソロデビュー曲である「無人駅」です。これまで何百回も歌っている曲で、「この曲と共にここまで来られた」と思われる曲です。

若い世代にとって「演歌」は少し近寄りやすいジャンルですが、AKB48のヒット曲を演歌バージョンで歌うなど、裾野拡大のために努力をされていると聞きました。演歌に対する岩佐美咲さんの想いは。

若い世代が演歌を聴く機会はあまり多くないため、近寄りやすいと感じることもあるかと思います。そこで、私の歌が若い世代が演歌を聴くきっかけの一つになれば嬉しいです。「AKB48出身の子が演歌も歌うのか」と、演歌バージョンのAKB48のヒット曲を聴いたり、さらには私がカバーした演歌の原曲も探して聴いたりするなど、様々な方法で演歌に接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れば嬉しいです。

最近、韓国でも若いトロット歌手が活発に活動を行っていますが、韓国のトロットを聴いたことがありますか。演歌と比べてどう感じましたか。

インターネットで韓国のトロットを聴いたことがありますが、演歌と雰囲気が非常に似ていました。歌詞を日本語に変えれば、演歌のように歌える曲が多かったです。

日本国内はもちろん、海外活動で非常に忙しい日々を過ごしておりますが、その原動力は何ですか。

사키 씨의 마음가짐은.

젊은 세대가 엔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노래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엔카를 듣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면 매우 기쁘겠습니다. ‘AKB48 출신이 엔카도 부르네’라면서, 엔카 버전의 AKB48 히트곡을 듣거나, 나아가 제가 리메이크한 엔카 원곡을 찾아 듣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엔카를 접할 수 있게 된다면 매우 기쁠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의 트로트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엔카와 비교한다면.

인터넷에서 한국의 트로트를 찾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엔카와 분위기가 많이 비슷했어요. 가사를 일본어로 바꾸기만 하면 엔카처럼 부를 수 있는 곡이 많았습니다.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 활동으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저 스스로도 왜 그러는지 모를 정도로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부터 가수가 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고, 이후로도 꼭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단순한 꿈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CD도 내고, 콘서트도 하고, 저를 응원해 주는 팬 분이 생길 정도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의 마음가짐, 즉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다음 달에는 브라질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자주 한국에 올 수 있겠죠.

한국 팬들과 독자에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여행을 올 정도로 한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기쁠합니다. 부디, 엔카라는 일본의 역사 깊은 전통 음악을 한국 분들도 많이 들어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自分でもどうしてなのか分からないくらい、物心付いた時から歌手になりたいとずっと言ってきました。テレビなどを見て歌手になりたいという気持ちが芽生えたのだと思いますが、その後もずっと歌手になることしか考えていませんでした。子供の頃は単なる夢に過ぎなかったですが、今はCDを出してコンサートも聞かせていただき、私を応援してくださるファンの方もいるなど、現実になりました。あの頃の気持ち、つまり初心を忘れないように努力しつつ、がんばって活動しています。

今後の活動計画は.

来月はブラジルで公演を行う予定です。今後も機会があれば、ぜひとも韓国で活動したいです。そうすれば、より頻繁に韓国に来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

韓国のファンや本誌の読者に一言お願いします.

プライベートで旅行に来るほど韓国が好きですので、今回韓国で歌うことができ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ぜひ演歌という深い歴史を持つ日本の伝統的な音楽を韓国の皆さんにもたくさん聞いていただき、応援していただきたいです。

SITTORI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자기 삶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몇 번이나 하게 될까. 이번 호에 소개하는 'SITTORI'의 김슬기 파티시에는 게임회사와 항공사를 거쳐, 자신의 꿈을 찾아 제빵, 제과를 배우고,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SITTORI'의 의미와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는.

불렸을 때 어감도 좋고, 제과 하드 계열 빵보다는 소프트 계열의 빵을 좋아해서, 일본어로 '부드럽고 촉촉하다'는 의미의 'SITTORI'를 가게 이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빵, 제과를 배우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다면.

다른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요리나 제빵·제과 쪽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도 너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커서, 결국 나카무라 아카데미에 등록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장사 목적이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빵을 만들기 위해 제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 제빵, 제과를 선택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어렸을 때, 일본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언어적인 면에서도 편했고 프랑스 제빵, 제과보다는 일본이 제 입맛



에 더 맞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맛이 달고, 시고, 강한 편이지만, 일본은 이런 맛들이 절제되어 있고 절충된 느낌입니다. 또, 아이디어나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점이 좋았습니다. 아기자기함과 소비자를 생각하는 부분에 매력을 느껴 일본 제빵, 제과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본 제빵과 제과는 비교적 여성 혼자서도 만들 수 있는 메뉴가 많습니다. 제과 업계는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해서, 과거에는 남성들이 주류를 이루던 세계였지만, 일본 제과는 손재주와 감각만 있으면 같은 반죽을 가지고도 부재료를 바꿔가며 얼마든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나카무라 아카데미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만드는 원리와 자세한 순서, 정리 정돈까지 중시하는 부분이 저와 더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난 덕분이기도 하지만, 청결함을 중시하는 위생적인 부분 등 제과를 대하는 태도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제빵 문화에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에도 신생 빵집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발전 단계라 일본과 프랑스 빵처럼 '한국 빵은 이런 것이다'라는 특징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가능성은 그 어느 나라 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빵을 만들거나 가게를 운영하면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아이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좋은 재료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시즌 별로 야키소바 빵이나 카레 빵 등 일본식 빵 메뉴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가게 콘셉트를 말씀 드리자면 '어두운 산길을 거닐다 만나게 되는 밝은 불이 켜진 사랑방'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오기 편하고 오면 기분 좋은 가게, 저는 물론 가게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장 인테리어도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업체에 설명했고, 커튼도 천을 떼다가 제가 만드는 등 정성을 들였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느낌의 가게를 만들고 싶다는 확고한 이미지가 있었고, SITTORI를 통해 이를 실현할 수는 있었지만, 본 궤도에 오르려는 찰나에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남의 손을 빌리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지만,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때부터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좋은 직원들을 채용하고, 가족들에게 집안 일도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모

든 일을 다 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때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덕분에, 지금처럼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경영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서, 요즘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외식경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어려서 육아와 가게 운영을 잘 병행해 가는 것이 목표지만, 경영 관련 공부도 하면서 준비를 해서,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제과, 제빵을 요리에 접목해 보고 싶습니다.

독자들 나아가 제빵, 제과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은.

요즘 프랑스와 일본 제과의 경계가 많이 사라졌고, 전 세계적으로도 셰프들이 레시피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기만 잘 배우면 레시피만 있어도 혼자서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과의 원리와 기초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일본 제과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본 서적 소개 꿀벌과 천둥

진정 음악의 신에게 사랑 받고 있는 이는 누구인가?

온다 리쿠 지음 | 김선영 옮김 | 현대문학 출간



2017 제14회 서점대상과 제156회 나옴상을 동시에 수상한 역사적인 기록과 더불어 온다 리쿠에게 사상 첫 서점대상 2회 수상의 영예를 안긴 '꿀벌과 천둥'. 첫 구상으로부터 12년, 취재 기간 11년, 집필 기간 7년의 시간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써 내려간 작품으로, 온다 리쿠의 새로운 대표작이 되었다.

일본 하마마쓰시에서 실제로 3년마다 열리고 있는 국제 피아노 콩쿠르를 무대로 인간의 재능과 운명, 음악의 세계를 아름답게 그려낸 소설이다.

한때 천재 소년으로 불렸지만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무대를 떠났던 에이덴 아야. 유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줄리아드 음악원 출신의 엘리트

마사루 카를로스 레비 아나톨. 음악을 전공했지만 지금은 악기점에서 일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28세 가장 다카시마 아카시. 그리고 양봉가 아버지를 따라 이곳 저곳을 떠돌며 홀로 자유로운 음악을 추구해온 16세 소년 가자마 진. 수많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들 네 사람이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자신과의 싸움. 3차에 걸친 예선을 뚫고 본선에서 우승을 거머쥔 사람은 누구인가?

8월 일본소설 베스트셀러

순위	도서명	저자명	출판사명
1	기사단장 죽이기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동네
2	나미야 집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3	꿀벌과 천둥	온다 리쿠	현대문학
4	위험한 비즈니스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5	가면산장 살인사건	히가시노 게이고	재인
6	바다가 보이는 이발소	오가와라 히로시	알에이치코리아
7	기린의 날개	히가시노 게이고	재인
8	노르웨이의 숲	무라카미 하루키	민음사
9	너의 책장을 먹고 싶어	스미노 요루	소미미디어
10	인간 실격	다자이 오사무	민음사
11	너의 이름은.	신카이 마코토	대원씨아이
12	상냥한 저승사자를 기르는 법	차넌 마키토	북폴라자
13	상실의 시대(원제: 노르웨이의 숲)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사상사
14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	미치오 슈스케	들녘
15	너의 책장을 먹고 싶어	스미노 요루	소미미디어
16	라플라스의 마녀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17	전생했더니 슬라임이었던 건에 대하여	후세	소미미디어
18	범인 없는 살인의 밤	히가시노 게이고	알에이치코리아
19	1Q84. 1	무라카미 하루키	문학동네
20	시원찮은 그녀를 위한 육성방법	마루토 후미야키	다원씨미디어

(제공: 교보문고)

TDC Tokyo Selected Artwork Exhibition 2017 in Seoul

오는 9월 14일(목)부터 (주)삼원특수지 페이퍼갤러리는 일본 최고 권위의 국제 타이포그래피 협회 TDC Tokyo와 공동 주최로 'TDC Tokyo Selected Artwork Exhibition 2017 in Seoul' 전시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개최한다. 2014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지난 1년 동안 공동 협업을 통해 2016년도와 2017년도 공모전 수상작 및 출품작 500여 점 중, 우수 작품을 카테고리 별로 선별하여 총 125점과 시리즈를 전시한다. 전시 작품은 스물 그래픽, 도서 디자인, 마크 & 로고, BI & CI, 패키지, 광고, 포스터, RGB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고 있다. 일본, 한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 아시아 국가 외에 전 세계 20개국에 넘는 유명 작가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전시의 또 다른 볼거리는 메인 포스터다. 기존의 TDC Tokyo 전시 포스터 대신, 2017년 TDC Tokyo 공모전에 노미네이트 된 심대기 작가가 전시 포스터를 디자인했다. 포스터 중간 빈 공간에는 TDC 글자를 얼굴로 형상화한 그래픽 이미지가 숨겨져 있어 핸드폰 카메라 플래시를 이용해서 촬영하면 그래픽이 나타난다. 이 그래픽은 3m Reflective 특수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 전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직접 포스터를 촬영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별도의 공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기간 9월 14일(목) ~ 27일(수) 10:00 ~ 17:30 (토일 휴관, 17:00시까지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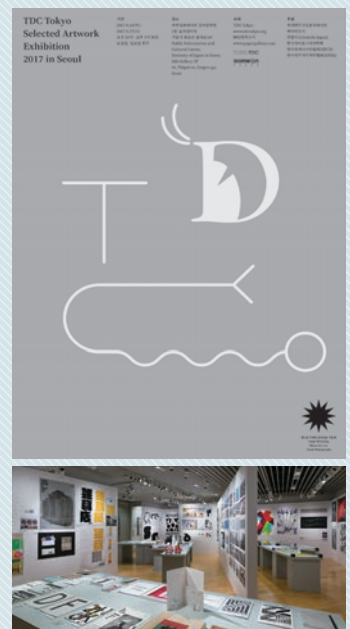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공동주최/주관 (주)삼원특수지, TDC Tokyo(Type Directors Club)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페이퍼모어, Antalis Japan, 한국타이포그래피학회,

한국현대디자인협회(KECD),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KPDA)

문의 (주)삼원특수지 페이퍼갤러리 02-468-9008 <http://www.papergallery.co.kr>



서울살이 -산수회 제12회 작품전-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재한 일본여성들(교포 포함)의 모임인 '산수회'의 열두 번째 작품전이 오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서울살이'를 테마로 한국에 살면서 배우고 제작한 도예, 민화, 서예, 자수, 한지 미술 등 총 12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일시 10월 16일(월) ~ 20일(금) (10:00~17:30, *20일 16:00까지)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주최 산수회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서경대학교 한일문화예술연구소

문의 010-5094-8960(대표 정선희)



제15회 한일 가라오케 대회 예선참가자 모집 안내

한국어가 모국어인 분은 일본어 노래를, 일본어가 모국어인 분은 한국어 노래를 부르면 된다. 그 이외의 외국어가 모국어인 분은 한국어와 일본어 노래 중 선택 가능하다. 또한 예선대회에 참가 가능한 분이면, 한국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어도 응모 가능하다(단, 참가 비용은 모두 본인 부담). 자세한 내용은 SJ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선대회 11월 25일(토) 14:00~ 동자아트홀

주최 Seoul Japan Club(SJC)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주관 SJC 교양문화위원회

문의 Seoul Japan Club 사무국 02-739-6962

[응모방법]

마감 9월 29일(금) ※응모자가 많을 경우, 추첨으로 예선 참가자 결정.

방법 응모용지 다운로드(<http://www.sjchp.co.kr>) 후 작성, SJC 사무국 제출(마감일 필착)

송부처 (031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12층 Seoul Japan Club 사무국

e-mail sjchp@sjchp.co.kr / FAX 02-739-6961



일본 영화 상영회 드라마가 영화로...

9월의 일본 영화 상영회에서는 드라마를 영화로 만든 작품을 소개한다. 일본에서는 만화나 애니메이션과 함께 TV 드라마의 영화화도 큰 축을 이루고 있다. TV에서 방영되어 성공을 거둔 작품이 스크린으로 옮겨지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제작된 영화가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번에는 일본 역대 실사영화 흥행 수익 1위를 기록 중인 '춤추는 대수사선 2'를 비롯해서 6개 작품을 선보인다.

시간 14:30(14:00부터 입장)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9월 18일(월)	9월 19일(화)	9월 22일(금)	9월 25일(월)
노다메 칸타빌레 최종악장 후편 のだめカンタービレ最終楽章後編	모테키 : 모태솔로 탈출기 モテキ	호타루의 빛 ホタルノヒカリ	심야식당 深夜食堂
9월 26일(화)	9월 27일(수)	9월 28일(목)	9월 29일(금)
춤는 대수사선 2 踊る大捜査線 2	노다메 칸타빌레 최종악장 전편 のだめカンタービレ最終楽章前編	노다메 칸타빌레 최종악장 후편 のだめカンタービレ最終楽章後編	모테키 : 모태솔로 탈출기 モテキ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생생한 동물원 유학 여행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遊學)보고서

기적의 동물원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1967년에 생겼다. 하지만 개원 십수년 후, 시의 예산 부족으로 동물원은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폐원 직전에 이르렀다.



그 모습을 지켜 본 동물원의 한 수의사, 깊은 고민 끝에 사육사들을 소집한다.



그 순간 고릴라의 드러밍을 떠올린 담당 사육사가 제일 먼저 수의사의 요청을 실행에 옮기며 가이드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관객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를 본 또 다른 사육사는



하마는 피하조직이 밖에 있어 평소 스스로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 동물인데 하마 본래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준단?

시의 허락을 받아 밤 9시까지 동물원을 개방했고 해가 지자 하마는 드디어 물 밖으로 나와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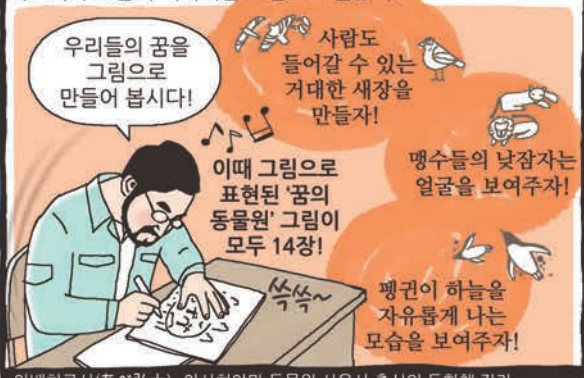
이제야 하마의 전신을 여러분에게 보여 줄 수 있게 되네요~



원래 하마의 피부는 햇볕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쉽게 갈라지기 때문에 밤에만 물밖으로 나온답니다.

아항~!!

멤버들의 가이드 작전은 화제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사육사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꿈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 멤버중에 한명인 아베 히로시가 그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옮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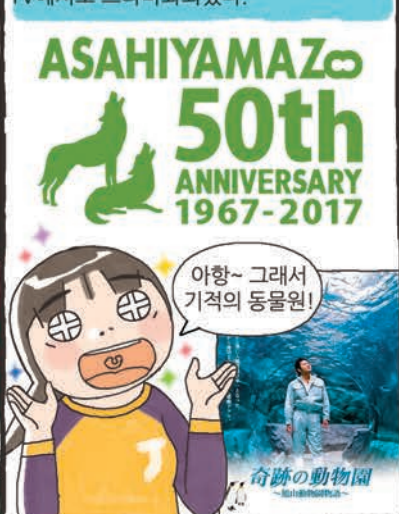
하지만 동물원의 인기 스타인 고릴라의 의문사로 동물원은 최악의 위기를 겪게 된다. 메스컴이 몰려들었고 급기야 일시 폐원하기에 이른다.



사육사들도 수의사들도 모두가 낙담에 빠져 침울하던 어느날, 느닷없이 날아온 의문의 선물. 알고 보니 시민들이 보내온 동물들의 먹이와 응원의 기부금.



연평균 방문객 145만명,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아사히야마 동물원의 이야기는 TV에서도 드라마화되었다.



*그 열네장의 그림이 모두 실현되었는지 우리 직접 가서 확인해 볼까요? ^^